

부산시민체육톡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56**
2024. 12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한국 탁구 100주년, 사상 첫 국내 개최

2024 파리올림픽

폭염보다 뜨거웠던 부산선수단의 열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부산, 8년 만에 종합 6위 쾌거!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생활체육 동호인 4,000여 명 참가, 성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부산기옥톡톡

CONTENTS

Vol. 56
2024. 12

1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한국 탁구 100주년, 사상 첫 국내 개최



2

2024 파리올림픽

폭염보다 뜨거웠던 부산선수단의 열기



3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부산, 8년 만에 종합 6위 쾌거!



4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생활체육 동호인 4,000여 명 참가,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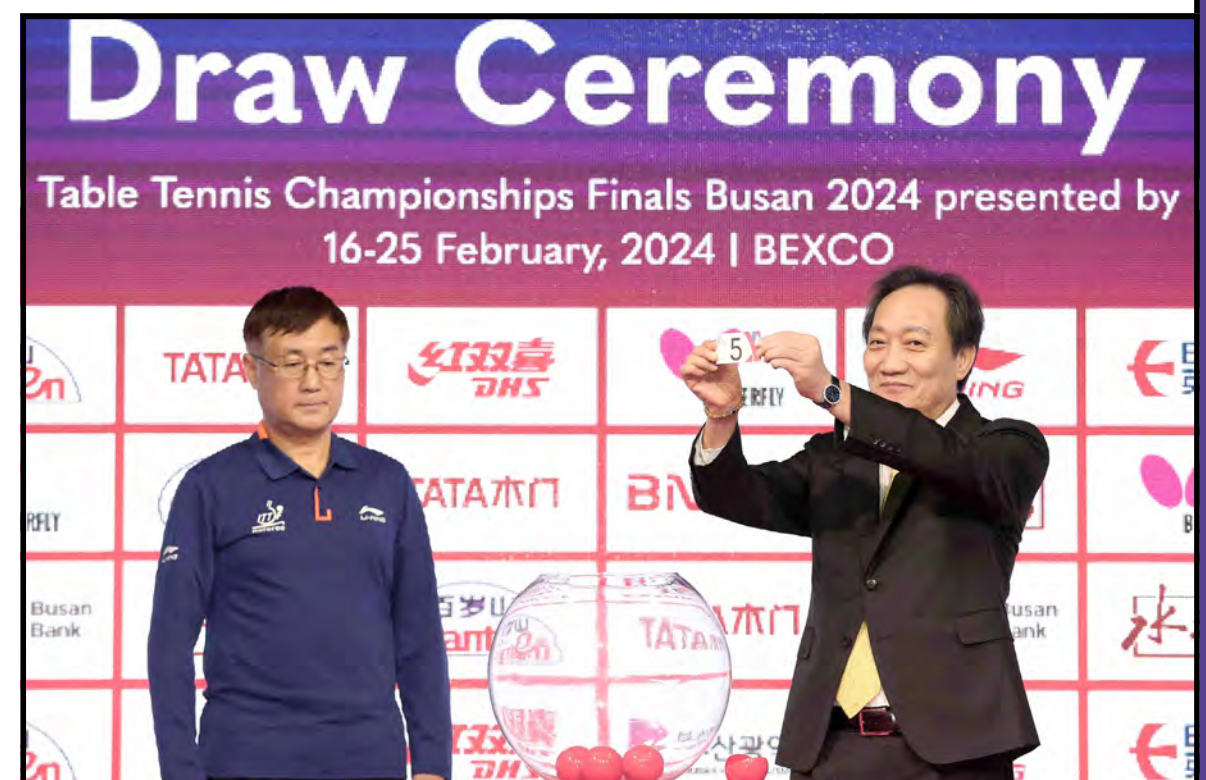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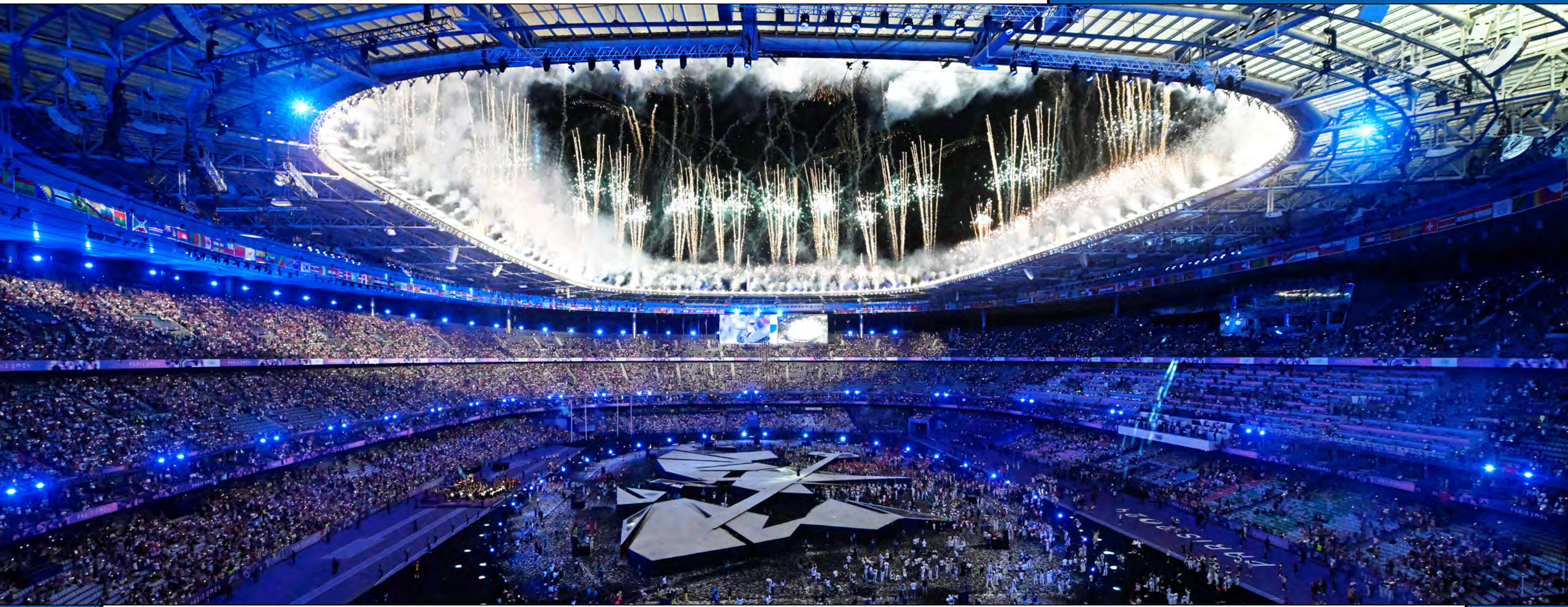
한국 탁구 100주년, 사상 첫 국내 개최

2024년 2월 16일, BNK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개막했다. ‘사상 첫 국내 개최’라는 타이틀 덕분에 대회에 참가한 대표팀 선수들은 물론 대회개최지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자못 뜨거웠다. 당초 한국은 2020년 부산대회 개최권을 확보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대회가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하지만 불운은 복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에 탁구 종목이 도입된 지 100주년 되는 해인 2024년에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자팀은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장우진과 임종훈을 앞세웠고 여자팀은 에이스 신유빈과 전지희를 필두로 메달 사냥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에서 한국 선수로는 21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기간 내내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국가대표팀은 아쉽게도 만리장성을 넘지 못했다. 남자대표팀과 여자대표팀 모두 전승을 기록하다 각각 4강과 8강에서 중국에 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남자 대표팀은 24일 열린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과 풀세트 접전 끝에 매치 스코어 2:3으로 역전패했다. 비록 경기는 졌지만 세계 랭킹 1, 2, 3위가 버티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이 남·여 모두 휩쓸며 탁구 최강국임을 드러냈지만 개최국인 한국이 남자 단체전 동메달, 여자 단체전 8강으로 33회 파리올림픽 단체 출전권을 따냈다. 남자 대표팀 장우진 선수(세계랭킹 14위)는 “한국 탁구가 중국에 안 된다는 인식은 깨뜨린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고 신유빈을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은 다음 대회에서의 설욕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기간에는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연계행사로 국제탁구연맹 회장배 유소년·생활체육대회도 동시에 열렸고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국제탁구연맹의 이사회 등 ITTF 서밋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ITTF 이사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2026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유치를 확정하게 되면서 부산 대회의 유산이 강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보다 뜨거웠던 부산선수단의 열기

제33회 파리올림픽은 그야말로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무대였다. 구기 종목의 부진과 역대 최소 인원 출전으로 많은 우려 속에 막을 올렸던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갔다. 22개의 종목에서 총 144명이라는 역대 최소 인원의 선수만이 출전해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은 최종 순위 8위를 기록했다. 이는 단일 대회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성적이며, 해외에서 열린 올림픽에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더불어 역대 최다 공동 1위다. 대한체육회가 내세운 금메달 5개, 종합 순위 15위라는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대단한 성과였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부산 출신 및 부산 연고팀 소속 선수들의 활약이 특히 눈부셨다. 총 23명의 부산 선수들이 8개의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총 6개의 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낭만 있게 끝내고 싶다'는 출사표를 던졌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는 부상 투혼 끝에 값진 금메달을 따내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김원호 선수는 정나은(화순군청) 선수와 함께 혼합복식에서 16년 만에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배드민턴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여러 악조건 속, 많은 우려를 안고 막을 올린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총 32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8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소위 메달밭이라 불리는 종목(육상, 수영, 체조)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선수들이 분전하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의 힘을 당당히 증명한 무대가 되었다. 한국 선수단 유일 구기종목으로 출전했던 여자 핸드볼 팀은 본선 진출의 문은 열지 못했지만, 세계선수권 6위인 독일을 꺾으며 향후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선수들의 기죽지 않는 강인함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으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화력은 더욱 강해졌다. 두려울 것이 없는 대한민국 선수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진 하며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4년 후, LA 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오길 기대한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부산, 8년 만에 종합 6위 쾌거

2024년 전국체전에서는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며 역대급 기록이 쏟아졌다. 대한체육회 집계 결과,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신기록 1개, 세계 타이기록 1개, 한국 신기록 16개, 한국 타이기록 1개 등 무려 192개의 신기록이 달성되었다. 이는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하는 기록이다. 특히 신명준(23·경기도청)은 지난 12일 대구 체고 수영장에서 열린 핀수영 남자 일반부 호

흡잠영 100m 종목에서 30초97의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에 빛나는 임시현(21·한국체대)도 60m 종목에서 세계 타이기록인 355점을 기록하며 그 실력을 입증했다.

이같은 신기록이 쏟아진 배경에는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들의 출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참여가 다른 선수들에게도 동기 부여가 되어 기록 경신을 이끌어 낸 것이다. 다관왕을 차지한 선수 역시 지난해보다 37명이 늘었다. 수영의 황선우(21·강원특별자치도), 체조의 신솔이(20·강원도체육회) 등 2명이 5관왕에 올랐으며, 총 206명의 선수가 다관왕에 이름을 올리며 대회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번 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은 총 49개 종목에 참가해 18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금메달 54개를 획득하며 2016년 충남 대회 이후 8년 만에 최고 득점을 기록했고, 6대 광역시 중 1위 자리를 2년 연속으로 지키게 되었다.

7일간 열띤 경기가 진행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17일 오후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폐막식은 선수단과 도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적 발표, 시상, 폐회상, 대회기 전달, 성화 소화,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성화대 공간을 활용한 독특하고 입체적인 무대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전략 기지인 경남의 미래 비전을 담아냈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환송사에서 “모든 경기 한순간 한순간이 선수와 관람객, 국민이 함께 울고 웃는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반목과 갈등, 분열이 만든 단단한 벽을 허무는 화합과 존중의 한마당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선수단을 향해 “후회 없는 승부의 시간이었길 바라며, 경남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모두 무사히 돌아가길 바란다”며 응원을 보냈다. 이어 전국체전 대회기를 차기 개최지인 부산시 김광희 미래혁신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7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4,000여 명 참가, 성료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며, 다채로운 볼거리로 부산 시민이 사랑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왔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행사는 지난 10월 5일 오후 5시, 강서체육관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고신대학교 태권도시범단과 국가대표 댄스스포츠,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의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각 구·군의 슬로건, 특산품, 마스코트들이 등장한 개성 넘치는 입장 퍼레이드가 보는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어 공정한 경기와 스포츠맨십을 다짐하는 선수대표의 선서가 진행되었다. 박형준 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과 함께 오렌지색 배구공을 힘차게 날리며 부산 체육의 도약을 응원했다. 전야제의 피날레는 가수 조항조와 이찬원 등의 화려한 축하 공연으로 장식되며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의 종합우승은 사하구체육회가 차지했으며, 해운대구체육회와 연제구체육회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또한, 전야제 입장 퍼레이드에서는 강서구체육회가 질서상, 영도구체육회가 화합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체육대회 운영 우수단체로는 탁구협회와 체조협회가 선정되어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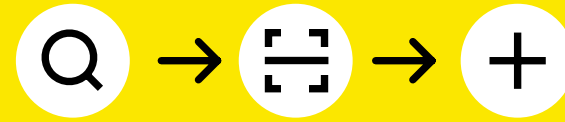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은 “제45회 부산시민의 날을 맞아 개최한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부산시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시민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산 최대 체육축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은 생활체육을 향한 부산 시민들의 열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시민 간의 화합을 도모해 활기찬 도시 부산이 되기를 기대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생활
5% 할인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학원
5% 할인

학원 인증

의료
10% 할인

병원/약국 인증

체육시설
10% 할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지정 시설

스포츠
10% 할인

골프/스포츠/레저 인증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 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카드 자세히 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 × BNL 부산은행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스폰서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 멤버

